

**2. 비상상황(자연재해 등) 발생시 수립된 금융지원대책(보도
자료 포함) 및 각 항목별 실적, 당시 피해액**

- 자료 : 별 첨

<2006년 7월 집중호우>

☐ 금융지원대책 (보도자료 별첨)

- 은행권의 경우, 각 은행에 지원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재해복구 자금대출, 기한연장, 원리금 납입유예 등 지원
- 보험권의 경우, 각 보험사가 피해지역에 이동피해보상 및 상담센터 운영, 보험사고 접수시 청구서류 간소화, 보험금 신속 지급, 보험료 납입 유예, 보험대출의 원리금 상환유예 등 지원
- 비은행권의 경우, 피해지역 기업·가계의 신용카드 결제기일 일정 기간 연장
- 금감원은 피해지역 금융기관 점포에 대한 검사일정 변경 등

☐ 지원실적

- <붙임 1> 참조

☐ 보험권의 추정손해액 : 261억원

- 일반손해보험이 0.7억원, 재물보험이 186억원, 자동차 보험이 74억원, 풍수해보험이 0.2억원임

<2003년 태풍 매미>

☐ 금융지원대책 (보도자료 별첨)

- 은행권의 경우 재해지원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재해복구자금대출과 함께 기존대출금 기한연장, 원리금 납입유예, 연체이자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시행
- 보험권의 경우, 각 보험사가 피해지역에 이동피해보상 및 상담센터 운영, 보험사고 접수시 청구서류 간소화, 보험금 신속 지급, 보험료 납입 유예, 보험대출의 원리금 상환유예 등 지원
- 금융협회 및 각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피해지역에 수해관련 상담센터를 설치·운영

☐ 지원실적

- <붙임 2> 참조

☐ 보험권의 추정손해액 : 6,018억원

- 일반손해보험이 4,081억원, 자동차 보험이 942억원, 해상보험 등 기타가 995억원임

<붙임 1>

은행권역의 지원실적(06.7.25현재)

□ 은행권(총 18개)중 일반은행(7개) 및 특수은행(5개)에서 총 3조 6,6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 계획

○ 국민은행은 총한도 구분 없이 가게 및 기업에 대한 지원

* 외환은행 등 여타은행은 피해복구관련 자금 신청시 적극 지원할 계획

➔ 7.25. 현재 금융지원 실적 : 기업(6억원) 국민(45억원) 및 농협(0.2억원) 등 10.7억원(신규자금)

금융기관별 주요 금융지원 계획

은행별	금융지원 계획	비 고
우 리	·5,000억원 긴급지원, 금리우대(1.2%p)	“특별종합지원센터” 설치
신 한	·5,000억원 긴급지원, 금리우대(1.0%p)	
하 나	·3,000억원 긴급지원, 금리우대(0.7%p)	
씨 티	·시설·운전자금(업체 10억원), 금리우대(1.0%p)	“수해기업 특별지원반” 설치
국 민	·생활안정자금(개인 20백만원), 경영자금(업체 5억원)	
대 구	·300억원 긴급지원, 금리우대(1.5%p)	
전 북	·300억원 긴급지원, 금리우대(1.65%p)	
부 산	·1,000억원 긴급지원, 금리우대(0.5%p)	
경 남	·3,000억원 긴급지원, 금리우대(1.5%p)	“피해복구 특별 지원반” 설치
산 업	·3,000억원 긴급지원, 금리우대(1.0%p)	“피해복구 T/F” 구성
수출입	·1,000억원 긴급지원, 금리우대(1.8%p)	“종합대책반 T/F” 구성
기 업	·3,000억원 긴급지원, 금리우대(0.5%p)	영업점 ‘안내문’ 게시
농 협	·1조원 긴급지원, 금리우대(0.5%p)	
수 협	·2,000억원 긴급지원, 금리우대(1.5%p)	

* 신탁은 피해조합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지원, 저축은행은 재해지원 전담창구 운영

보험권역의 지원실적(06.7.25현재)

(단 위 : 백만원)

구분	회사명	수재의연금	인력 및 물품 지원내용
손 보	신동아	-	○ 인재,평창지역 30명 3일 동안 자원봉사 및 물품 지원 계획중
	제 일	-	○ 침수지역 보상팀 현장 비상 체제 운영
	삼 성	-	○ 7.8일부터 "재해비상대책위원회" 본격 가동 - 콜센터 24시간 비상근무 체계운영 (7.9일부터 인력 100명 추가투입) - 고객사업장 방재를 위한 문자메세지 및 이메일 발송 (총 13회, SMS 7회, 이메일 6회) - 강원도 피해지역에 전담인력 추가파견 및 보상 캠프 설치(침수건 보상처리 상담안내 등 담당)
	현 대	-	○ 물품지원 - 양평동 : 컵라면200박스(3,200개), 부탄가스 1,000개 ○ 인력지원 등 - 인제군 : 견인차량 6대, 출동직원 7명, 하이플래너 6명 - 양평동 : 견인차량 5대, 하이플래너 5명 수해지역 차량 무상점검서비스 시행(예정)
	L I G	2	○ LIG 배구단 수재의연금 ○ 물품지원(7.16) : 영등포구청, 모포 500매
	동 부	-	○ 프로미봉사단 활동중, 위문품전달 캠페인 실시 ○ 재해지역 비상지원 대책팀 구성 지원활동개시 (강원도지역 5명 인력파견)
	손보협회	-	○ 업계/협회 공동 피해지역 수해복구 긴급지원단 운영 (특별재난 선포 18개 시·군, 24명)
	소 계	2	
생 보	대 한	-	○ 수해복구 및 구호물품 지원(평창, 인제, 양양) - 복구인원 : 66명 - 구호물품 : 선풍기, 라면, 이불 등(21백만원 상당)
	교 보	-	○ 수해복구 및 구호물품 지원(평창, 인제, 양구,홍천) - 복구인원 : 231명 - 구호물품 : 선풍기, 라면, 이불 등(12백만원 상당)
	신 한	26	
	소 계	26	
총 계		28	

<붙임 2>

주요 지원실적(03.10.1현재)

1. 금융지원실적

□ 기업, 산업, 수출입, 부산, 경남 등 16개 은행에서 총 2,040억원을 지원

○ 형태별 지원내역 : 신규자금지원 1,110억원, 대출금 만기연장 892억원, 원리금 납입유예 23억원 등

○ 주요은행별 지원현황 : 조흥 34억원, 우리 25억원, 하나 39억원, 대구 47억원, 부산 102억원, 경남 122억원, 산업 223억원, 기업 766억원, 수출입 452억원 등

2. 대국민 홍보 및 상담센터 등 운영실적

가. 대국민 홍보

- 금융회사의 태풍피해현황
- 태풍관련 보험사고 지원대책 마련 및 피해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지도 등
- 금융회사의 태풍피해 복구현황
- 금융기관별 피해복구를 위한 금융지원대책
- 금감원내 금융지원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비상대책본부 가동 및 상담센터 설치·운영 등

나. 현장상담 실시현황

- ☐ 피해가 심한 6개 지역에 4개팀 11명의 상담요원을 파견하여 애로사항 상담·접수 및 금융기관 등 참여 독려

대상 지역 및 인원수	설치 장소 운영 기간	상담 실적
경남지역(마산, 창원) (4명)	경남은행 본점 (9.17~20)	○ 상담 : 22건 (은행 13, 보험 3, 기타 6)
부산, 울산지역 (2명)	농협(울산) (9.17~18) 부산은행(부산) (9.19~20)	○ 상담 : 3건(은행2, 보험 1) ○ 관계기관 등 방문 협조 요청 - 울산광역시청 재해특별반 - 경남은행 울산지역본부
대구·경북(경산,의성) 및 강원(삼척)지역 (2명)	상공회의소(삼척) (9.17~9.18) 농협(경산):9.19 농협(의성):9.20	○ 상담 : 5건(은행 5) ○ 관계기관 등 방문 협조 요청 - 재해대책본부, 국민은행, 조흥은행, 농협, 대한생명
여수지역 (광주지원) (3명)	농협(여수) (9.17~9.19)	○ 상담 : 72건 (은행 31, 보험 37, 상속조회 4)

다. 금융상담센터 운영실적

- ☐ 우리원 본·지원(대구, 부산) 3곳에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

구분	운영 기간 (전화)	운영 실적
본원	9. 16 ~ 10. 10 (02-3786-8694~5, 8688)	○ 상담 : 51건 (보험관련)
대구 지원	9. 16 ~ 10. 10 (053-760-4014, 4017)	○ 상담 : 41건 (대출 및 보험관련)
부산 지원	9. 16 ~ 10. 10 (051-606-1704, 1730)	○ 상담 : 86건 (대출 및 보험관련)



보 도 참 고 자 료



· 작성부서	금융감독원 총괄조정국		
· 담 당 자	정창모 팀장(☎ 3786-8004)		
· 배 포 일	2006. 7. 18.	배포부서	공보실 (☎ 3771-5788~91)

※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제 목 : '06.7월 집중호우 관련 금융권 피해현황 및 대응

주요 내용

☐ 금융감독원은 금번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금융지원과 소비자 보호 등 각종 지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반을 구성하여 금융권의 피해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음

☐ 7.18(화) 10시 현재 피해지역 소재 은행영업점 등 16개 점포가 침수되는 등 일부 피해가 있었으나 임시조치 등으로 복구 완료하여 정상 영업중인 것으로 확인됨

○ 침수·누수 15개 점포, 정전 1개 점포

☐ 한편,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회사로 하여금 재해지원 전담 창구를 설치하여 자금지원과 피해 보상 등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적극 독려하고 있음

○ 특히, 보험회사는 이동 상담(보상)센터 운영 및 보험금 신속 지급 등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

※ 금융감독위원회·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fsc.go.kr>와 www.fss.or.kr)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



보 도 참 고 자 료



금융감독원

· 작성부서	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과,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		
· 담 당 자	이윤수 사무관(☎ 3771-5155), 김영린 부국장(☎ 3771-5940)		
· 배 포 일	2006. 7. 17.	배포부서	공보실 (☎ 3771-5788~91)

제 목 : '06.7월 집중호우관련 금융지원대책 수립

주요 내용

- ☐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은 7.17(월) 10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
 - 금융기관의 피해를 점검하고 피해지역의 주민과 기업의 복구를 지원하는 등 관련대책을 마련키로 하였다.
- ☐ 현재까지는 피해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침수되는 등 일부 피해가 확인되었으나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
 - 감독당국은 금융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전산센터 등 관련 피해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중이다.
- ☐ 감독당국은 피해지역 주민과 기업들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.

※ 금융감독위원회·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fsc.go.kr>와 www.fss.or.kr)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

① 은행권의 경우, 각 은행에 재해지원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재해복구자금대출과 함께 기존대출금 기한연장, 원리금 납입 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

② 보험권의 경우, 각 보험회사가 피해지역에 이동(移動)피해 보상 및 상담센터를 설치·운영토록 하는 한편

- 보험사고 접수시 청구서류를 간소화하고 피해사실 확인시 보험금을 신속 지급

- 이재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한편, 보험대출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원리금 상환유예

③ 비은행권의 경우, 피해지역 기업·가계의 신용카드 결제기일 일정기간 연장

④ 금감원은 피해지역 금융기관 점포에 대한 검사일정 변경 등

□ 한편, 감독당국은 이러한 금융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융감독원내에 '집중호우관련 금융분야 지원대책본부'를 설치하여

○ 피해지역 금융지원과 소비자보호 등 각종 지원대책을 총괄하고

○ 향후 피해상황을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지원대책을 수립·시행할 계획이다.



보도자료



· 작성부서	금융감독원 검사총괄국, 보험감독국		
· 담 당 자	김 원 부국장(☎ 3786-7012), 손광기 팀장(☎ 3786-8100)		
· 배 포 일	2003. 9. 15 .	배포부서	공보실 (☎ 3771-5788~91)

※ 이 자료는 9월 16일(조간)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 목 : 금융회사의 태풍피해 복구현황 및 금융지원대책

주요 내용

□ 금번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지역 소재 영업점이 침수되거나 정전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금일(9.15) 부터는 대부분 복구가 완료되어 정상영업중이다.

- 피해 유형별로는 침수피해가 99개 점포였고, 유리창 및 간판 파손이 214개 점포, 정전피해가 415개 점포였다.
- 이밖에 각 금융회사의 전산센타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.

□ 한편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회사는 피해지역 주민과 기업들의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일련의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.

- 은행권의 경우 농·수협, 국민, 산업, 기업, 조흥, 외환 등이 재해 지원 전담창구를 마련하고
- 재해복구자금대출과 함께 기존대출금 기한연장, 원리금 납입유예, 연체이자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시행키로 하였다.

※ 금융감독위원회·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fsc.go.kr>와 www.fss.or.kr)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

□ 특히 보험권의 경우에는 각 보험회사가 피해지역에 이동(移動) 피해보상 및 상담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한편

- 보험사고 접수시 청구서류를 간소화하고 추정보험금의 50% 이상을 우선 지급하여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.
- 또한 피해복구기간을 고려하여 이재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(예:금년말까지)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보험대출의 경우에도 일정기간(예:금년말까지) 원리금의 상환유예, 연체이자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.

□ 한편, 금융감독원에서는 효율적인 금융지원을 위하여 강권석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금융지원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비상지원대책본부를 설치·운영하기로 하였다.

- 아울러 금융협회 및 각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피해지역에 수해 관련 상담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등 피해복구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.

붙임 : 금융회사 태풍피해 복구현황 및 금융지원대책

(붙임)

금융회사 태풍피해 복구현황 및 금융지원대책

I. 금융회사 태풍피해 및 복구현황

정전중인 일부 영업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업점이 금일부터
정상 영업중

<은행권>

- ☐ 피해현황 ┌ 침수 : 13개은행 80개점포
 └ 파손 : 12개은행 129개점포
 └ 정전 : 10개은행 381개점포

- ☐ 복구현황 : 은행 영업점의 경우 복구가 완료되어 9.15 현재 정상
 영업중임
 다만, 농·수협 회원조합의 일부 영업점(농협 14개점포,
 수협 23개점포)은 9.15.10:00 현재 정상영업 곤란

- ☐ 전산센타 : 전 은행 피해 없음

<비은행권>

- ☐ 피해현황 ┌ 침수 : 9개 금융회사
 └ 파손 : 7개 금융회사
 └ 정전 : 11개 금융회사

- ☐ 복구현황 : 정전중인 거제 및 마산지역의 6개 신협(경남항운 · 신마산 · 신현 · 거제중앙 · 장승포 · 아주신협)을 제외한 전 금융회사 정상영업중

〈보험회사〉

- ☐ 피해현황 ┌ 침수 : 3개보험사 4개점포
 └ 파손 : 12개보험사 60개점포
 └ 정전 : 2개보험사 4개점포

- ☐ 복구현황 : 침수 정도가 심한 2개 영업점(삼성생명 거제, LG화재 마산)을 제외한 전 영업점이 복구가 완료되어 9.15 현재 정상영업중임

- ☐ 전산센타 : 피해 없음

〈증권회사〉

- ☐ 피해현황 ┌ 침수 : 5개증권사 6개점포
 └ 파손 : 8개증권사 18개점포
 └ 정전 : 8개증권사 19개점포

- ☐ 복구현황 : 전 영업점이 복구가 완료되어 9.15 현재 정상영업중임

- ☐ 전산센타 : 피해 없음

II. 금융지원 대책

1. 태풍피해에 따른 금융지원 강화

피해지역 주민과 기업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금융권의 복구자금 지원과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금 조기 지급 등 금융지원을 강화

< 은행권 >

국민은행

- ☐ 주택 신축, 개·보수자금(주택파손으로 신축 또는 개·보수 희망 고객), 생활안정자금(가구당 20백만원 이내), 소상공인 재해복구자금(재해복구에 필요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)을 각각 지원
- 이와 함께 '03.9~10월중 이자를 '03.11월말까지 납부시 연체이자 전액 면제

농협중앙회

- ☐ 피해복구자금 신규 지원(행정기관이 확인한 피해액중 담보 또는 신용범위 이내) 및 기존대출금 기한연장 및 원리금납입 유예(연체이자 면제)
- 신용조사, 감정평가, 제증명 발급수수료 등 대출관련수수료 면제로 고객의 불편 및 금융부담 경감 도모

☐ 농작물(과일)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

- 강원, 영·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실태의 신속한 조사후 수확종료 시점에서 보험금을 지급(피해지역이 10천ha로 전체보험 가입지역의 94% 수준)

수협중앙회

- ☐ 피해복구자금(일반, 상호금융, 공제, 수산정책자금)을 지원(피해 확인금액 범위 이내, 가계자금은 20백만원 이내)하고 기존대출금 기한연장 및 원리금납입 유예(연체이자 면제)를 추진
- ☐ 양식장시설 피해 어업인에 대한 「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」 우선 보증을 추진하고 공제가입선탁에 대한 보험금 신속 지급

산업은행

- ☐ 생산능력 회복을 위한 피해시설 복구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조업차질 등에 따른 긴급부족운영자금(중소기업 50억원, 대기업 100억원 이내, 한도초과시 본부장 승인)을 지원하는 한편 대출금 기한을 연장
- 대출금리 : 기준금리 + 2% 이내

기업은행

- ☐ 피해 중소기업의 시설자금(소요자금의 100% 이내)과 운전 자금 및 가계자금을 긴급지원하는 한편 피해기업에 대하여 대출이자를 2%p 추가 감면하는 등 금리를 우대

조흥, 외환, 부산 등 일반은행

- ☐ 태풍피해 가구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복구자금(개인 5천만원 이내, 중소기업 3억원 이내) 지원, 대출금 상환유예 및 연체 대출금 감면
- ☐ 지역소재 태풍피해 업체에 대하여 신규자금 지원 및 기존 대출금의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주택신축, 개보수 자금, 생활 안정자금, 소상공인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하고 태풍발생으로 인한 이자 연체의 경우 연체이자 등을 면제

< 보험권 >

☐ 신속한 피해보상

○ 보험금 신속지급

- 보험사고 접수 즉시 현장 출동·조사
-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(사망, 사고 증빙서류를 행정기관 확인 및 이웃사람 증명으로 대체)

○ 보험금 우선지급 시행

- 추정보험금의 50%이상 우선 지급(피해자 방문 지급)

□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

○ 피해복구기간을 고려하여 일정기간동안 罹災民 등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(연체이자 면제)

□ 보험료 납입 유예

○ 피해복구기간을 고려하여 일정기간동안 罹災民 등에 대한 보험료 납입을 유예

⇒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및 보험료 납입 유예는 업계의 자발적인 참가를 적극 유도*하고, 유예기간은 1차로 금년 12월까지로 설정(예정)

* 9.15 현재 전 손해보험회사 및 생보사 중 삼성·교보·대한·알리안츠·흥국·금호·신한생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키로 하였음

□ 약관대출 신청시 신속대출

○ 약관대출 신청시 24시간 이내 지급

□ 풍수해 피해차량에 대한 긴급출동서비스 확대

2. 비상지원대책기구 설치·운영

금융감독원 (비상지원대책 본부)

□ 단 장 : 강권석 부원장

- 금융지원반 : 검사총괄국장(반장, 3786-7010) 및 관련부서장
- 소비자보호반 : 소비자보호센터국장(반장, 3771-5700) 및 부산, 대구지원장

* 「금융감독원 태풍관련 금융상담센터」 전용 전화번호

본 원 : ☎02-3786-8694~5, 8688

부산지원 : ☎051-606-1704, 1730

대구지원 : ☎053-760-4014, 4017

□ 운영기간 : 2003. 9. 13(토) ~ 상황 종료시

□ 주요 업무내용

- 금융회사별 피해내용 파악
- 피해내용별 대응방안 강구 및 지도
- 사고 지역에 대한 민원 파악 및 신속한 금융지원 지도
- 항구적인 금융회사 피해예방대책 수립 등

□ 우리원, 금융업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지원센터 운영

- 피해지역에 우리원 직원을 파견, 출장상담 실시
- 부산, 대구지원에 수해관련 상담센터 운영

각 금융회사 (비상지원대책반)

□ 운영기간 : 2003. 9. 13(토) ~ 상황 종료시

□ 주요 업무내용

- 침수 및 정전 등 피해내용 파악
- 파손장비의 교체 및 수선 등 신속한 복구
- 사고 지역에 대한 민원 파악 및 신속한 대응 등
- 생·손보험회 지사 및 보험회사 지점의 민원접수센터 확대·개편(보상 및 상담직원 추가 배치)
- 피해가 큰 풍수해 지역에 이동 피해보상 및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
- 관내지역에 대한 생필품 등 구호물자 지원

<참고 1>



태풍 피해관련 보험종목별 보상가능여부

피해유형	보험종목	담보여부	비 고
1. 인명피해 - 사망, 상해	- 생명보험 - 손해보험(상해보험 등)	○ △	- 천재위험담보특약 가입시 담보가능
2. 자동차사고 - 대인 - 대물 - 자기신체 - 자기차량	- 대인배상 I, II - 대물배상 - 자기신체사고, 자동차상해 - 자기차량손해	△ × ○ ○	- 대인배상 I 만 보상
3. 재산피해 - 주택, 빌딩, 공장	- 화재보험 - 재산종합보험 - 주택상공종합보험	△ ○ ○	- 풍수재특약 가입시 담보가능
- 기업휴지	- 재산종합보험	○	- 기업휴지손해 가입시 담보가능
- 전자기기, 기계	- 전자기기보험, 기술보험	△	- 전자기기보험의 경우 태풍담보특약 가입시 담보가능
- 건설공사	- 건설공사보험, 조립보험	○	
- 농작물	- 농작물재해보험	○	- 농협공제에서 영위
- 선박 좌초, 침몰, 파손, 유실	- 선박보험영문약관 (500톤이상) - 어선재해보상보험 (500톤미만)	○ ○	- 수협공제에서 영위 (코리안타에서 재공제 참여)
- 건조중인 선박	- 선박건조보험	○	- 충돌배상책임손해도 담보
- 컨테이너	- 컨테이너보험	○	
- 컨테이너 적하물	- 적하보험	○	
- 크레인	- 중장비안전보험	△	- 풍수재특약 가입시 담보가능
- 유도선 침몰	- 선박보험국문약관	○	
- 해양오염	- 유류오염배상책임보험	○	- KSA(한국해운조합)에서 영위 (손보사는 재공제 참여)

<참고 2>

손해보험회사별 긴급출동서비스 연락처

회사명	전 화 번 호
동양화재	1566 - 7711
신동아화재	1566 - 8000
대한화재	080 - 778 - 8572
그린화재	1588 - 5959
쌍용화재	1688 - 1688
제일화재	1566 - 8282
삼성화재	1588 - 5114
현대해상	1588 - 5656
엘지화재	1544 - 0114
동부화재	1588 - 0100
교보자동차	1566 - 1566

	<h1 style="margin: 0;"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
· 작성부서	금융감독원 검사총괄국, IT업무실, 각 검사국	
· 담 당 자	검사총괄팀장 김 원(3786-7012), IT검사지원팀장 권한용(3786-7170)	
· 배 포 일	2003. 9. 14.	배포부서 공보실 (☎ 3771-5795, 5790)

※ 이 자료는 9월 15일(조간)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 목 : 금융회사 태풍(매미) 피해 현황 및 대응책

주요 내용

- 추석 연휴 중 우리나라 남부 지역을 휩쓴 태풍(매미)으로 인하여 금융회사의 영업점이 침수되거나 정전되는 등 68개 금융회사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.
 - 피해 유형별로는 침수피해가 99개 점포였고, 유리창 및 간판 파손 피해현황은 214개 점포로 나타났으며
 - 이밖에 정전피해가 415개 점포인 것으로 집계되었다.
 - 이들 피해금융회사들은 대부분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큰 부산, 마산, 창원, 울산, 여수 소재 점포들이다.
- 그러나,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에서는 2003. 9. 13. 비상대책본부 등을 설치하여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점포 중 9개를 제외한 대부분 점포(98.8%)는 일요일까지 복구를 완료할 예정이다.

※ 금융감독위원회·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fsc.go.kr>와 www.fss.or.kr)에 수록되어 있습니다

(1/4)

- 이에 따라 피해지역 국민들의 금융거래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, 아울러 금융회사의 전산센타가 피해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함에 따라 정상영업이 불투명한 일부 영업점 고객도 인근 점포 등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.
- 또한, 피해지역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태풍으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독려함과 아울러 피해지역 기업에 대한 대출금 기한 연장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.

붙임 : 금융회사 태풍피해 대응책

참고 : 1. 금융회사의 태풍 「매미」 피해 현황

2. 태풍 매미 피해관련 보험사고 현황

(붙임)

태풍 피해 대응책

□ 금융감독원내 비상대책본부 편성·운영

① 운영기간 : 2003. 9. 13(토) ~ 종료시

② 주요 업무내용

- 금융회사별 피해내용 파악
- 피해내용별 대응방안 강구 및 지도
- 사고 지역에 대한 민원 파악 및 신속한 대응 지도
- 항구적인 금융회사 피해예방대책 수립 등

□ 금융회사별 비상대책반 편성·운영

① 운영기간 : 2003. 9. 13(토) ~ 종료시

② 주요 업무내용

- 침수 및 정전 등 피해내용 파악
- 파손장비의 교체 및 수선 등 신속한 복구
- 사고 지역에 대한 민원 파악 및 신속한 대응 등

□ 태풍 관련 보험사고 지원 대책 마련

① 신속한 피해보상

- 보험사고 접수 즉시 현장 출동·조사
-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(사망, 사고 증빙서류를 행정기관 확인 및 이웃사람 증명으로 대체)

② 보험금 우선지급 시행

- 추정보험금의 50%이상 우선 지급(피해자 방문 지급)

③ 태풍 피해차량에 대한 긴급출동서비스 확대

□ 피해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지도

① 대출 원리금 기간 연장 등

- 피해복구기간을 고려하여 일정기간(예; 금년 12월말까지) 동안 罹災民 등에 대한 대출원리금 기한 연장 등

② 보험료 납입 유예

- 피해복구기간을 고려하여 일정기간(예; 금년 12월말까지)동안 罹災民 등에 대한 보험료 납입을 유예

□ 기 타

- 생·손보험회를 중심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생필품 등 구호물자 지원

(참고 1)

금융회사의 태풍 「매미」 피해현황

(‘03.9.14. 15시 현재)

(단위 : 개)

금융 권역별	침수		정전		파손	
	회사수	점포수	회사수	점포수	회사수	점포수
은 행	13	80	10	381	12	129
비은행	9	9	11	11	7	7
보 험	3	4	2	4	12	60
증 권	5	6	8	19	8	18
합 계	30	99	31	415	39	214

(참고 2)

태풍 「매미」 관련 보험사고 접수 현황

□ '03.9.14. 12:00 현재까지 태풍 매미로 인해 접수된 보험사고는 자동차보험이 13,456건 245억원, 일반손해보험이 418건 1,115억원, 화재보험이 11건 200억으로 총 1,560억원(이상 추정치)으로 나타났으며

○ 사고접수 현황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

□ 이는 재보험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로, 통상 80~90%를 해외 재보험에 가입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내보험사가 실제 부담할 보험금은 그만큼 줄어들 전망

<참고사항>

- 화재보험 : 현재 사고 접수중이므로 정확한 집계는 3~4일후 가능할 것으로 보임
- 해상보험 : 선박침몰 등의 손해는 현재 확인중
- 특종보험 : 크레인 붕괴(11기)사고로 인한 손해는 약 180억으로 추정

3. 상호협정에 의한 공동인수 보험 계약 현황

(붙임 참조)